2027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일반형)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7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40점, 550~570자) 문제 2 (40점, 550~570자) 문제 3 (20점, 330~350자)
3.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칸에 작성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중앙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일반형)의 출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중앙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세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나'(박 군)는 가난에서 벗어나 새 삶을 꾸리려고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간도로 갔으나, 땅을 얻지 못한 채 구들 고치기, 삯일, 두부 장사, 나무 도적질까지 하며 굶주림과 멸시에 시달린다. 결국 그는 가족을 두고 집을 떠나 ××단에 가입하고, 친구 김 군의 편지에 답장을 쓴다.

김 군! 두세 차례 보낸 편지는 반갑게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회답하지 못하였다. 물론 군의 충정에는 나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충정을 나는 받을 수 없다.

—박 군! 나는 군의 탈가(脫家)를 찬성할 수 없다. 낯설고 험한 이국땅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고 나선 군의 행동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박 군! 돌아가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군의 부모와 처자가 낯선 땅 길바닥에서 헤매는 것을 나는 눈앞에 보는 듯싶다. 그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군의 품밖에 없다. 군은 그들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군은 군의 가정에서 기둥이다. 기둥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조그마한 고통으로 집을 버리고 나선다는 것이 의지가 굳다는 박 군으로서는 너무도 나약한 처사이다.

군은 ××단에 몸을 던져 ×선에 섰다는 말을 얼마 전 황 군에게서 듣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없다. 가족을 못 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

박 군! 나는 군이 돌아가기를 충정으로 바란다. 군의 가족이 사람들 발아래에서 짓밟히는 것을 생각할 때! 군의 가슴인들 어찌 편하랴.

김 군! 군은 이러한 말을 편지마다 썼지? 나는 군의 뜻을 잘 알았다.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동정하여 주는 군에게 내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정다운 벗의 충고에 나는 늘 울었다. 그러나 그 충고를 들을 수 없다. 듣지 않는 것이 군에게는 고통이 될는지? 분노가 될는지?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일지도 알 수 없는 까닭이다.

(중략)

김 군!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리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수려고 하는 것이다.

(중략)

이 사상이 드디어 나로 하여금 집을 탈출하게 하였으며, ××단에 가입하게 하였으며, 비바람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 끝보다 더 험한 ×선에 서게 한 것이다.

김 군! 거듭 말한다. 나도 사람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애정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떠나는 날부터 식구들은 더욱 곤경에 빠질 줄도 나는 알았다. 자칫하면 눈 속이나 어느 구렁에서 죽는 줄도 모르게 굶어 죽을 줄도 나는 잘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도 남의 집 행랑살이하는 어멈이나 아범, 길바닥을 헤매는 거지를 무심히 보지 않는다. 아! 나의 식구도 그럴 것을 생각할 때면 자연히 흐르는 눈물과 뿌직뿌직 찢기는 가슴을 덮쳐 잡는다. 그러나 나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쥔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하며 비애에 상하지 않으려고 한다. 울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었으며 비애에 상하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도 드러내는 듯싶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참고 분투하려고 한다.

김 군! 이것이 나의 탈가한 이유를 대략 적은 것이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내 식구에게 편지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이 죽어도, 내가 또 죽어도…….

나는 이러다가 성공 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원한이 없겠다. 이 시대, 이 민중의 의무를 이행한 까닭이다.

(나) **[앞부분 줄거리]** 온천 도시의 온천 의무관 스토크만 박사는 온천수가 몰레달의 무두질 공장들에서 흘러드는 오물로 오염되었음을 밝혀내고 이를 알리려 한다. 그러나 시장인 형과 신문사 사람들, 시민들은 그의 공표를 막으려 하고, 박사는 시민 집회에서 연설을 한다. 오염의 근원으로 지목된 무두질 공장의 주인 모르텐 킬은 박사 부인의 양아버지이다.

스토크만 박사 (자제력을 잃고) 그렇다면 나는 길모퉁이마다 다니며 진실을 외치겠소! 다른 도시들의 신문에 그것을 쓰겠소!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온 나라가 알게 될 것이오!

호브스타 스토크만 박사의 의도는 거의 이 도시를 망치려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스토크만 박사 그렇소. 내 고향 도시는 내게 너무도 소중하기에, 거짓 위에서 번영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망하게 하겠소.

아슬락센 이건 정말 심각하군요. (소란과 야유. 스토크만 부인이 기침을 하지만 소용이 없다. 남편은 더 이상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중략)

군중 속의 목소리들 저건 영락없이 민중의 적이 하는 소리다!

빌링 맹세코, 방금 민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 전체 (소리치며) 그렇다, 그렇다! 저자는 민중의 적이다! 저자는 제 나라를 증오한다! 제 민중을 증오한다!

아슬락센 시민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저는 방금 우리가 들어야 했던 말에 깊이 당혹스럽습니다. 스토크만 박사는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의견을 결의로 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집회는 온천 의무관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를 민중의 적으로 간주함을 선언한다." (환호와 박수가 폭풍처럼 일어난다. 여러 사람이 박사를 둘러싸고 야유한다. 스토크만 부인과 페트라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모르텐과 에일리프는 야유하는 다른 학생들과 싸우고, 어른 몇이 그들을 떼어 놓는다.)

(중략)

모르텐 킬 (스토크만 박사에게 다가가며) 이보게, 스토크만, 자네의 이 원숭이 같은 짓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겠나?

스토크만 박사 저는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모르텐 킬 몰레달의 무두질 공장들에 대해 자네가 뭐라고 했나?

스토크만 박사 똑똑히 들으셨잖습니까. 그 공장들이 모든 오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르텐 킬 내 공장도?

스토크만 박사 유감스럽게도 어르신의 공장이 단연 가장 심합니다.

모르텐 킬 그걸 신문에 낼 작정인가?

스토크만 박사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겁니다.

모르텐 킬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도 있네, 스토크만. (나간다.)

(중략)

아슬락센 술 취한 사람 하나를 제외한 이 자리의 모든 분의 투표로, 본 시민 집회는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를 민중의 적으로 선언합니다. (함성과 박수.) 유서 깊고 명예로운 우리 시민 공동체를 위해 만세 삼창! (다시 박수.) 집안의 정을 그토록 충실하게 억누르신, 유능하고 정력적인 우리 시장님을 위해 만세 삼창! (환호.) 이로써 집회를 마칩니다. (단상에서 내려온다.)

빌링 의장님을 위해 만세 삼창!

군중 전체 아슬락센 만세 삼창! 만세!

스토크만 박사 내 모자와 외투를 다오, 페트라! 선장, 당신 배에 신세계로 가는 승객을 태울 자리가 있소?

호르스테르 박사님과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스토크만 박사 (페트라가 외투 입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좋소. 갑시다, 캐서린! 가자, 얘들아!

스토크만 부인 (낮은 목소리로) 여보, 뒷문으로 나가요.

스토크만 박사 내게 뒷문은 없소, 캐서린. (목소리를 높여) 이 민중의 적이 당신들에게 신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떠나기 전에, 당신들은 그에 대해 더 듣게 될 거요! 나는 어떤 분처럼 너그럽지 않소. "너희를 용서하노라,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라고는 말하지 않겠소.

(다) **[앞부분 줄거리]** 무명작가인 '나'(K)는 결혼한 뒤 지식을 얻으려고 지나와 일본을 떠돌다 돌아와, 처가의 도움으로 살림을 차리고 독서와 창작에 매달린다. 돈 한 푼 벌지 못해 아내가 세간과 옷을 잡혀 끼니를 잇는 동안, 친척들은 은행에 다니며 착실히 돈을 버는 T와 '나'를 늘 비교한다. 어느 날 처형이 아내에게 새 신 한 켤레를 사 주고 간다.

"T는 돈을 알고 사람이 진실해서 그 애는 돈푼이나 모을 거야! 그러나 K(내 이름)는 아무짝에도 못 쓸 놈이야. 그 잘난 한글 섞어서 뭐라고 끄적거려 놓고, 제 주제에 무슨 조선에서 유명한 문학가가 된다니! 실없는 놈 같으니!"

이것이 그들의 평판이었다. 내가 문학인지 무엇인지 한다는 소리가 까닭 없이 그들의 비위에 거슬린 것이다.

(중략)

나는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고 날이 새며 쌀이 있는지 땔나무가 있는지 까맣게 몰랐다. 그래도 때때로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오르고 입은 옷이 그리 초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힘이었다. 아내인들 무슨 벌이가 있으리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친정에 가서 눈치를 보아 가며 구차한 소리를 해서 얻어 온 것이었다.

(중략)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아내는 나의 성공만 마음속으로 깊이깊이 믿고 빌었다. 언젠가 내가 무엇을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쓰던 것을 집어던지고 화를 냈을 때,

"왜 마음을 조급하게 잡수세요! 저는 꼭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 날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장래에 잘될 바탕이에요."

하고 아내는 스스로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한 적도 있었다.

(중략)

겉으로는 좋은 듯이 대답했으나 마음은 쓸쓸하였다. 내가 아내에게 신 한 켤레를 사 주지 못해, 아내는 남에게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구나…….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처형이 제 남편을 밉다느니 어쩌니 하면서도 기차를 놓치면 남편이 기다릴까 염려하여 급히 가던 것이 생각난다. 그것으로 미루어 아내의 속마음도 알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처지라 정신적 행복에만 만족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부족한 것이다. 다만 참을 따름이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 전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난다.

'언젠가는 아내의 은공을 갚아 줄 날이 있겠지!'

나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며 아내를 보았다.

"나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신 한 켤레쯤은 사 주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아내가 이런 말을 듣기는 참 처음이다.

"네에?"

아내는 제 귀를 못 미더워하는 듯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얼굴에 살짝 열기가 오르며,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정말 그럴 것 같소?"

나는 약간 흥분하여 반문하였다.

"그럼요, 그렇고말고요."

아직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무명작가인 나를 다만 저 하나가 깊이깊이 인정해 준다. 그러기에 그 강한 물질에 대한 본능적 요구도 참아 가며 오늘날까지 크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나를 도와준 것이다.

(라) **[앞부분 줄거리]**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말만 믿고 돈 한 푼 받지 않은 채 삼 년 일곱 달 동안 데릴사위로 일해 왔다. 그러나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미처 자라지 않았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루고, 구장을 찾아가 판단을 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쫑알거린다. 딴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헌담!" 하니까,

"쇰*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중략)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어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밸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켕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궂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었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 하지만 내가 골이 나서가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퍽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부려만 먹구 왜 성례 안 하지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중략)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질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댕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 쇰: '수염'의 방언.

(마) **[앞부분 줄거리]**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를 끄는 김 첨지는 달포가 넘도록 기침을 하며 앓아누운 아내에게 약 한 첩 써 보지 못하고 지낸다. 눈 대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그는 아침부터 연달아 손님을 태워 오랜만에 팔십 전을 벌고, 이어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자는 학생을 만난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던 것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기었다. —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자는 그 벼만 남은 얼굴에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것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때에 김 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압다, 젠장맞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래도 그래, 그러면 일찍 들어와요."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중략)

"일 원 오십 전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 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 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중략)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걱정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싶다. 딸꾹딸꾹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먼."하고 탄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 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예, 예." 하고, 김 첨지는 또다시 달음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 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재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바) **[앞부분 줄거리]** 파리에서 빚만 지고 러시아로 돌아온 류보피 안드레예브나(라네프스카야)의 영지는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처지이다. 살림은 양녀 바랴가 맡고 있고, 상인 로파힌은 벚꽃 동산을 별장지로 빌려 주면 영지를 구할 수 있다고 거듭 권한다. 저녁 무렵 이들 앞에 술 취한 떠돌이가 나타난다.

류보피 (지갑 안을 들여다보며) 어제는 돈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주 조금밖에 없네. 가엾은 우리 바랴는 돈을 아끼느라 모두에게 우유 수프만 먹이고, 부엌에서 늙은 하인들은 완두콩밖에 못 얻어먹는데, 나는 마구 써 버리는구나. (지갑을 떨어뜨려 금화가 흩어진다.) 저런, 사방에 흩어졌네.

(중략)

로파힌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벚꽃 동산과 땅을 별장지로 빌려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당장, 지금 즉시요. 경매가 코앞에 닥쳤어요. 아시겠어요! 일단 별장으로 확실히 마음을 정하시기만 하면 원하시는 만큼 돈이 생기고, 여러분은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류보피 별장이니 별장 사람들이니, 그건 너무 속되잖아요, 미안하지만.

(중략)

떠돌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딸꾹질을 하며) 날씨가 좋군요.... (낭송하듯) 나의 형제여, 고통받는 나의 형제여.... 볼가로 나오라, 그 신음 소리가... (바랴에게) 아가씨, 굶주린 러시아 사람에게 30코페이카만 주십시오....

(바랴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로파힌 (화를 내며) 누구나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오!

류보피 (흠칫 놀라며) 이걸 받아요... 여기 있어요.... (지갑을 더듬는다.) 은화가 없네.... 상관없어요, 여기 금화를 받아요.

떠돌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간다. 웃음.)

바랴 (겁에 질려) 저는 갈래요, 갈래요.... 아, 어머니, 집에는 하인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에게 금화를 주시다니요.

류보피 나 같은 바보를 어쩌면 좋니! 집에 가면 내가 가진 걸 전부 너에게 주마. 예르몰라이 알렉세예비치, 돈을 좀 더 빌려 줘요!...

(사) 장주(莊周)가 조릉(雕陵)의 밤나무 숲 울타리 안을 거닐다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이상한 까치 한 마리를 보았다. 날개 너비는 일곱 자요 눈의 지름은 한 치나 되었는데, 장주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밤나무 숲에 내려앉았다. 장주가 말했다.

"이게 무슨 새인가? 날개는 커도 멀리 날지 못하고, 눈은 커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장주는 아랫도리를 걷어 올리고 종종걸음으로 다가가 활을 들고 새를 노렸다. 그때 매미 한 마리가 보였는데, 마침 시원한 그늘을 얻어 제 몸을 잊고 있었다. 사마귀가 나뭇잎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매미를 잡으려 하는데, 먹잇감을 보고 제 몸을 잊고 있었다. 이상한 까치는 그 뒤를 따르며 사마귀를 노리는데, 이익을 보고 제 참된 본성을 잊고 있었다. 장주가 깜짝 놀라 말했다.

"아! 만물은 본디 서로 얽혀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불러들이는구나!"

장주는 활을 버리고 돌아서 달아났는데, 밤나무 숲지기가 그를 도둑으로 여겨 쫓아오며 꾸짖었다.

— 『장자』「산목」에서

장주는 집이 가난하여 감하후(監河侯)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다. 감하후가 말했다.

"좋소. 내가 곧 영지에서 세금을 거두게 되니, 그때 그대에게 삼백 금을 빌려주겠소. 그러면 되겠소?"

장주가 버럭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제가 어제 이리로 오는데 길 한가운데서 누가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에 붕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붕어야, 너는 무엇 하는 놈이냐?' 하고 물으니, 붕어가 '저는 동해 물결을 섬기는 신하입니다. 당신에게 물 한 말이나 한 되쯤 있으면 저를 살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더군요. 제가 '좋다. 내가 곧 남쪽으로 오나라와 월나라 임금을 만나러 가니, 서강의 물을 끌어다가 너를 맞이하마. 그러면 되겠느냐?' 하였더니, 붕어가 버럭 낯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함께하던 물을 잃어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물 한 말이나 한 되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차라리 일찌감치 건어물 가게에 가서 저를 찾는 편이 낫겠습니다!'"

— 『장자』「외물」에서

(아)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상실을 겪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랑하던 대상을 잃은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대상에 묶여 있던 마음을 조금씩 거두어들이는 과정을 '애도'라고 부른다. 애도는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마음은 다시 새로운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잃어버린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다. 고향, 지위, 한 시절의 꿈처럼 마음을 기대어 왔던 모든 것이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라진 것을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대하며 그 주위를 맴돈다. 그는 겉으로는 고통을 피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갇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 잃어버린 것을 떠나보낼 때 비로소 그것은 삶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삶을 이루는 기억이 된다.

(자) 우리 몸에 처음 들어온 병원체는 면역계에 낯선 존재이다. 몸에는 침입자를 곧바로 막아서는 선천 면역도 있지만, 병원체 표면의 특정한 분자 구조, 즉 항원을 알아보는 세포를 찾아내 그 수를 늘리고 항체를 만드는 후천 면역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기까지는 대개 일주일 넘는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우리는 앓게 된다. 후천 면역은 이 병원체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고 대응할 준비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체가 물러간 뒤에도 그 항원을 알아보는 세포 가운데 일부는 '기억 세포'로 남아 오랫동안 몸속을 돈다. 같은 병원체가 다시 들어오면 기억 세포가 곧바로 반응하여 처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항체를 만들어 낸다. 예방 접종은 이 원리를 이용한다. 병원체의 항원이나 항원에 관한 정보를 미리 몸에 제시하여, 실제 감염에 대비한 면역 반응과 기억 세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억이 언제나 이로운 것은 아니다. 꽃가루처럼 해롭지 않은 물질을 적으로 기억하게 되면,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재채기와 가려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차) 사람들은 낯선 대상을 만나면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대상이 속한 집단의 특성을 먼저 떠올린다. 이처럼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비슷한 특성을 지녔다고 여기는 굳어진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은 복잡한 사회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지만, 개인의 차이를 지우고 한 사람을 그가 속한 집단의 이미지로만 판단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 나이대의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사람을 직접 겪어 보기도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일지를 미리 정해 버린다. 고정관념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지면 편견이 되

고, 편견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차별이 된다. 고정관념은 가정, 학교,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학습되며 세대를 넘어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고정관념은 바뀔 수 있다.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직접 만나 교류하거나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성찰하는 경험은 굳어진 생각을 깨뜨리는 계기가 된다.

(카)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대가를 치른 뒤에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은 효력을 잃는다. 과거의 형벌이 그 사람의 사회 복귀를 무기한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년법은 더 나아가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아직 인격이 자라는 중인 청소년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법률은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지난 잘못이 필요 이상으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바탕에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놓여 있다. 과거의 잘못이 언제까지나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면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고, 사회는 스스로를 바로잡은 사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다시 설 곳을 잃은 사람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하는데, 이는 한 사람을 그의 가장 나쁜 순간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가 지나온 시간 전체와 지금의 모습을 함께 살펴야 하며, 과거의 한 장면에 그를 영원히 가두어서는 안 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박 군, 스토크만 박사, K, '나'의 삶을 이끄는 '가치'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찾아 쓰시오. 그리고 박 군, 스토크만 박사, K, '나'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문제 2] 제시문 (마)의 김 첨지와 (바)의 류보피가 보이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쓰고, 이들의 가족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각각 쓰시오. 그리고 제시문 (사)를 바탕으로 김 첨지가,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류보피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자)의 면역 기억과 제시문 (차)의 고정관념에 나타나는 기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고,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지원자가 과거에 남긴 모든 온라인 기록을 학습하여 평가에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시문 (카)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끝〉